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6(2): 120-127, 2011
KOREAN J. FOOD CULTURE 26(2): 120-127, 2011
ISSN 1225-7060
본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 있음.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식당에서의 공식(共食) 행동에 대한 질적 연구

김희선[1] · 오세영[1,2]*
[1]경희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Study of the Behavior of Food-sharing with Personal Utensils in a Restaurant: Use of a Focus Group Interview

Hee-Sun Kim[1], Se-Young Oh[1,2]*
[1]*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Kyung Hee University*
[2]*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o identify "*Gongsik*", defined as food-sharing by picking food from a common plate using personal utensils, we conducted 7 focus group interviews including 47 university students during a 6 month period.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audio taped, transcribed, and categorized into major themes. We divided *Gongsik*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practical reasons, socio-psychological reasons, boundaries, suppressive situations, emotional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s using different utensils, and future prospects. *Gongsik* appeared to be useful for fostering quick food sharing, intimacy and solidarity, and a fixed behavior learned at home. If the amount of food was too small to provide individual servings, as in *Jjigae*, *Gongsik* was likely to occur spontaneously. Family, close relatives, friends, and lovers sharing common activities and/or blood ties were composed the boundaries of *Gongsik*. However, *Gongsik* was avoided in elegant restaurants or in view of foreigners. Participants showed mixed feelings towards *Gongsik*. *Gongsik* conducted with a spoon was considered to increase the degree of suggested intimacy in a food sharing context. Half of the students believed that the practice of *Gongsik* would be maintained into the future. *Gongsik* is a culturally-specific behavior that includ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s. Aside from improving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aspects of food-sharing, we suggest that the negative aspects of *Gongsik* related to the issue of hygiene be considered in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Key Words: food-sharing behavior, personal utensils, focus group interview

I. 서 론

음식 나눔(food sharing)은 모든 나라에서 흔히 나타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Martin 2007). Douglas(1966)에 따르면 음식 나눔은 친밀함, 소속, 배제, 사회계급, 거리, 경계(境界), 구분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 음식 나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씹어서 먹여주기, 제물 음복하기, 식사 함께하기 등이 있다(이 1983; Eibl-Eibesfeldt 2007). 음식 나눔의 유형을 보면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은 특정 집단 내에서 음식 나눔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 나눔이 어떤 사회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Anderson & Sull 1985; Counihan 1999, Haukanes 2007). 일례로 인도에서는 음식을 건네는 것이 친교와 결속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의미를 갖는다(Appadurai 1981).

음식 나눔의 한 유형인 '식사 함께하기'는 음식을 매개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로(Martin 2007) 그 방식과 사회적 의미는 나라와 사회 집단에 따라 다르다(Miller 등 1998). 식사할 때 음식을 나눠 먹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손대기 전의 자기 음식을 상대방에게 미리 덜어 주기,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상대에게 내 음식을 먹여주기,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덜지 않고 공동으로 먹기가 그것이다. 그런데 한국 가정에서는 반찬, 찌개 등을 덜지 않고 공동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 한식 상차림에서 밥과 국은 개인별로 제공되지만 반찬 찌개 등은 함께 나눠 먹도록 즉, 공유(share)하도록 차려지며 가족끼리는 앞접시에 덜지 않고 공동으로 먹는 경우

*Corresponding author: Se-Young Oh,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yung Hee University,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649 Fax: 82-2-959-0649 E-mail: seyoung@khu.ac.kr

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뿐 아니라 식당에서 가족 외의 사람들과 식사할 때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본다. 이에 반해 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덜음 용구로 앞접시에 덜어 먹는 것을 매너로 여긴다. 더욱이 숟가락으로 먹어야하는 음식을 덜지 않고 함께 떠먹는 광경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찌개 등을 덜지 않고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와 세균 전염의 우려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See 2009), 한식의 격을 떨어뜨리고 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해야할 습관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식당에서의 앞접시 사용을 권장해왔고 그 결과 앞접시를 제공하는 식당이 점차 늘고 있으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이 2009).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음식을 덜지 않고 공동으로 먹는 일이 매우 흔하며 반찬이나 찌개 뿐 아니라 아이스크림, 빙수 등의 후식류조차도 숟가락으로 같이 떠먹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지 않고 공동으로 먹는 그 이유를 규명해야만 효과적인 개선책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인의 음식공유 문화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Flandrin & Montanari(2000)는 한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가 '단순한 취향'에 불과한 것인지 혹은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그 행위를 문화적 맥락 안에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음식을 덜지 않고 공유하는 행위'를 이해하려면 이 행위가 단순한 취향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덜음 용구를 사용해 개인접시에 덜어 먹지 않고 개인의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해 공동으로 먹는 행동을 '공식(共食, 공동으로 먹는 행위)'이라 정의하고, 공식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하는 이유,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 공식을 꺼리는 경우, 공식할 때의 기분,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공식행동을 조사함으로써 공식문화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은 공식을 매우 빈번히 하는 집단으로 보아 연구대상자로 선택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방법

서울 소재 2개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음식문화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뒤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 이유는 이들이 음식문화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 대해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공식 행위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Morgan(1998)과 Krueger(1998)가 제시한 분석과정에 따라 분석하였다.

2. 자료 수집

포커스 그룹의 크기는 김 등(2000)의 제안에 따라 6명에서 10명으로 구성했다. 포커스 그룹의 수는 총 6개였으며 1차 8명, 2차 10명, 3차 6명, 4차 6명, 5차 7명, 6차 10명 등 총 47명(남 12명, 여 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1 저자가 토의를 진행했으며 매 그룹마다 연구 보조원 2명을 배석시켜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기의 정상 작동을 체크했다.

토의 시작 전 일반사항을 묻는 간단한 설문지를 개인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공식(共食)'의 정의를 설명하고 토의 중에 '공식'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고, 숟가락을 사용한 공식은 '숟가락 공식'이라 칭하기로 정했다. 토론은 도입, 전환, 주제, 마무리 질문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을 왜 하나요?', '누구와 공식을 하나요?', '어떤 경우에 공식을 하지 않나요?', '공식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공식 행위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가 이에 해당한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전 내용을 녹음했고 토론 시간은 한 그룹 당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0월 6일부터 2009년 4월 10일까지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연구 시작시점, 포커스 그룹 인터뷰 도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직후, 전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종료 후의 4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 시작 전에 공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을 정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진행 중에는 토론 내용을 경청하면서 중요 내용과 토론의 분위기, 토론자의 어조 등을 현장노트에 기록했다. 토론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은 재확인을 위해 추가 질문을 했고 한 그룹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마칠 때마다 요약 기록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읽어 주어 토론 내용이 올바로 정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토론 후에는 녹음한 내용을 바로 필사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분석한 자료와 현장노트 등을 토대로 도출된 새로운 주제를 다음 그룹의 토의에 반영했다. 첫 번째 그룹에서 제시된 주제가 두번째 그룹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또 다른 주제가 나타났는지 탐색했으며, 여섯번째 그룹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면담을 종료하였다. 전체 포커스 그룹 종료 후에는 필사본을 단어, 맥락, 내적인 일관성, 의견의 빈도, 의견의 다양함과 강도, 특이성, 중요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나

양상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공통된 의미에 따라 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토론 참여자 중 1명의 여학생을 제외한 전원이 집 혹은 집 밖에서 매일 1회 이상 공식을 하고 있었다. 그 1명의 여학생은 집에서 젓가락으로 먹는 음식은 공식하지만 찌개 등 숟가락으로 먹는 음식은 앞접시에 항상 덜어 먹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다들 공식을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공식을 한다고 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cs	All	Male	Female
	N(%)	N(%)	N(%)
Age(years)			
<20	12(25.5)	3(6.4)	9(19.1)
20-24	32(68.1)	6(12.8)	26(55.3)
25-29	3(6.4)	3(6.4)	-
Total	47(100.0)	12(25.5)	35(74.5)
Monthly spent money (10,000 won)			
≤10	2(4.3)	-	2(4.3)
11-20	7(14.9)	2(4.3)	5(10.6)
21-30	15(31.9)	2(4.3)	13(27.7)
31-40	15(31.9)	5(10.6)	10(21.3)
41-50	6(12.8)	2(4.3)	4(8.5)
>50	2(4.3)	1(2.1)	1(2.1)
Total	47(100.0)	12(25.5)	35(74.5)
Eating out cost (10,000 won)			
6-10	14(29.8)	-	14(29.8)
11-15	13(27.7)	3(6.4)	10(21.3)
16-20	13(27.7)	5(10.6)	8(17.0)
21-25	3(6.4)	2(4.3)	1(2.1)
>25	4(8.5)	2(4.3)	2(4.3)
Total	47(100.0)	12(25.5)	35(74.5)

2. 포커스그룹 면담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의 공식 경험으로부터 7개의 범주와 2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7개의 범주는 주문한 음식을 다 함께 공유하는 이유, 음식을 공유할 때 덜어먹지 않고 공식하는 이유,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 공식을 꺼리는 상황, 공식할 때의 느낌, 식사 도구에 따른 의미의 차이, 공식에 대한 향후 방향 제시이다. 분석결과를 범주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문한 음식을 다 함께 공유하는 이유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더라도 먹을 때는 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당연시 하며 선호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더 푸짐하게, 여러 가지 요리를, 더 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식 메뉴 중에는 즉석떡복이, 보쌈, 해물탕 등과 같이 주문단위가 대, 중, 소로 되어 있거나 1인분 이상의 분량으로 제공되는 다시 말해 공유를 전제로 한 메뉴가 많고 이런 경우는 자연히 공유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공식문화의 근저에는 음식공유를 당연시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푸짐해 보임> "음식을 가운데 다 모아놓고 나눠 먹으면 훨씬 푸짐해 보이고..."
<여러 요리를 맛볼 수 있음> "비빔밥, 순두부 둘 다 먹고 싶은데, 친구끼리 각자 시켜 서 같이 나눠 먹으면 둘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임> "다섯 명이서 3인분 시켜 나눠 먹으면 싸고 우리 양에 알맞아요"
<주문단위가 2인분 이상인 메뉴> "쟁반막국수나 보쌈같은 음식은 1인분씩 나오지 않 고 한 접시에 한꺼번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나눠먹을 수 밖에 없어요"

2) 음식을 공유할 때 공식하는 이유

음식을 공유할 때 개인접시에 덜어 먹지 않고 공동으로 먹는 데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식미적, 편의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친밀감을 표현하고 확인하기 위해 혹은 친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고 정을 나누기 위해 혹은 연인이 되고 싶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공식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은 '우리'라는 일체감과 동질감, 동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한다. 공식을 통해 얻는 이같은 심리적 만족이 '위생'에 대한 우려보다 크기 때문에 공식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접시에 덜어 먹으면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응답도 나왔는데 이는 공식을 거부하면 집단으로부터 배척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을 자기만 먹거나 혹은 앞접시에 따로 덜어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정도로 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공동체의식과 관련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해온 고착된 습관이라는 응답도 많았는데, 어머니나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먹여 주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줄곧 반찬과 찌개를 공식하며 살아왔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반찬을 공식하며 자연스레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이다.

음식의 특성상 덜면 맛과 볼품이 떨어지거나 덜기에 분량이 너무 적은 경우도 있었는데 찌개는 이런 이유로 숟가락

을 사용한 공식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음식이었다. 족발, 보쌈 등도 푸짐하게 담겨있는 접시에서 바로 집어 먹어야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여 '푸짐한 볼품'을 맛의 중요한 요소로 여김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개인접시를 쓰지 않으면 서빙과 설거지가 간편하고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덜어먹기 귀찮다는 것도 공식을 하는 이유였다. 개인접시를 생략하면 '빨리 빨리' 문화가 추구하는 간편함을 고객과 식당 측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공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음식의 볼품과 제맛을 잃지 않고 간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며, 친밀감을 형성 및 강화하고 정을 나누며 동류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우리'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적 기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친밀감 형성>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려와 같이 공식하게 됐는데 다 같이 친해지게 됐어요" "한 그릇의 음식을 공동으로 먹는 다는 건 정을 나누는 것이죠"
<공동체의식 강화> "무의식 중에 우리는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이 섞이는 데..."
"개인 접시에 떠 먹으면 너와 나를 구분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서에서 볼 때 미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접시를 달라고 하면 혼자 깨끗한 척 한다고 찍힐까봐 속으로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하게 되죠"
<고착된 습관> "집에서 가족들과 먹을 때 항상 공식하다보니 밖에서도 별 생각없이 공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맛있고 볼품있게 먹으려고> "푸짐하게 담겨있는 접시에서 바로 집어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찌개도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바로 떠먹어야 맛있지 덜면 금방 식고..."
<덜기에 적은 양> "찌개는 여럿이 먹을 때 어쩔 수 없이 공식을 하게되요. 덜기에 양도 너무 적고..."
<간편함> "덜어먹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먹고 나가려고..." "앞접시에 덜어 먹으면 설거지거리가 많아지잖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구요"

3)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는 세 부류로 나타났다. 첫째는 혈연 및 생활공동체로 가족을 포함해 자주 만나 격이 없는 친척이며 할머니, 고모, 삼촌, 이모, 사촌형제 등이 두루 포함되었다. 둘째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학교와 동아리 친구, 동창, 선후배 등이었다. 셋째는 친한 이성친구와 연인이었는데 이 경우는 성별에 따라 의견 차를 보여 남학생들은 이성친구와의 공식을 선호한 반면 여학생들은 아주 친한 경우가 아니면 꺼린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혈연이나 생활, 활동을 공유하여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친하고 편해서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며 신분이 밝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반면 나이나 사회적 지위 차가 큰 사람, 그다지 친하지 않은 동성 및 이성 친구와는 공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공식하는 범주와는 반대로 혈연이나 생활, 활동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어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격식을 차려야 되며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공식하는 범주에 속하더라도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 환자, 성격이나 입맛이 까다롭거나 공식을 싫어하는 사람과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병의 감염이 우려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편한 마음으로 공식하기 어려운 사람과는 공식을 피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된 편안한 사람들과만 공식함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자주 보는 친척> "가족이라도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고모, 사촌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부, 삼촌도 함께 살거나 자주 만나는 경우 공식을 해요"
<활동 공동체>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웃기도 할 경우 공식을 하게 되죠" "교양수업에서 같이 발표한 친구와 친해져서 공식을 했어요"
<연인> "연인끼리는 우리가 연인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 음료수에 빨대 하나를 꽂고 같이 먹어요"

4) 공식을 꺼리는 상황

서빙자가 음식을 분배해 줄 때나 격조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에는 공식을 자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기 몫이 분명히 정해진 경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하던 음식에 밥풀이나 고춧가루가 떨어져 음식이 지저분해 보이면 여러 사람의 숟가락과 침이 섞였다는 사실이 인지되면서 비위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공식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인 앞에서는 공식을 자제하려는 태도를 보여 공식을 품위 있는 매너로 생각하지는 않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은 우리의 '문화'이므로 외국인 앞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꽤 있었다.

<자기 몫이 분명히 정해진 경우> "복어탕을 먹으러 갈 때는 가족끼리라도 반드시 개인접시에 덜어 먹게 되요. 살점의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격식 있는 매너가 요구될 때> "나이나 지위가 달라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는 공식을 하지않죠"
<음식이 지저분해 보일 때> "국물김치에 고춧가루가 떨어져 있으면 지저분하게 느껴지면서 공식을 중단해요"
<외국인 앞에서> "숟가락을 넣고 먹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는 외국인 앞에서는 따로 떠서 먹을 것 같아요"

5) 공식할 때의 느낌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식할 때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앞서 밝혔듯이 가정에서부터 공식습관이 배어 식당에서도 별 생각없이 공식하기 때문이었다.

일부 응답자들은 내 몫을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했는데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에게서 이런 응답이 많았고 이런 이유로 인해 남학생들은 동성 간의 공식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침이 섞인다는 느낌, 비위생적이라는 느낌, 예의가 없다는 느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분이 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소수이긴 하나 친하다는 느낌, 평등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응답도 나왔다. 이로써 공식의 장에는 서로 상반된 심리가 공존함을 알 수 있었는데 공식을 통해 친밀감을 나누고 동류의식을 느끼려는 긍정적 심리와 제몫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비위생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심리가 그것이다.

<별다른 느낌 없음> "동성끼리는 아무 생각이 안들어요" "불편을 끼친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레드망고에 함께 간다는 건 이미 숟가락 공식을 묵인한다는 뜻이니까요"
<내 몫을 빼앗김> "싼 음식을 시킨 친구가 내가 시킨 비싼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할 때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위생적임>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침이 섞이니까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예의가 없음> "소개팅한 남자가 내가 마시던 캔 커피를 공식하려고 할 때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줌> "공식하기 싫은 사람한테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죠"
<친함> "먹는데서 정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식을 하면 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등함> "과거에는 불평등 사회라서 따로 먹었던 것이구요... 다 같이 공식하면 너나 나나 다 평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6) 식사 도구에 따른 의미 차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숟가락은 입과 음식에 닿는 면적이 넓으므로 젓가락이나 포크보다 숟가락을 사용한 공식이 친밀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였다. 포크는 친밀함의 의미가 가장 약한 도구로 드러났는데, 포크로 먹는 음식은 침 섞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공식하는 사람들 간의 침 섞임은 모두 불결한 행위가 아니라 친밀함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행위로도 여겨짐을 알 수 있었다. 소수이긴 하나 식사 도구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공식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는 도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숟가락이 가장 친밀함> "숟가락은 달라요. 면적이 넓고 입안에 다 들어오잖아요... 포크는 침이 섞인다는 생각이 전혀 않들어요"
<도구 간 차이 없음>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7) 공식에 대한 향후 방향

서로 정을 나누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공식만한 대안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덜어 먹는다고 친밀감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므로 없어지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다.

<강화되거나 지속될 것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공식이 오히려 강화될 것 같아요"
<개선되어야 함> "보건학 시간에 B형, C형 간염은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통한 감염율이 크다고 배운 뒤부터 한동안 찜찜했어요... 홍보하면 줄어들 것 같아요" "취업한 선배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그 중 연배가 가장 높은 선배가 찌개에 숟가락을 꽂아 넣고 그것으로 떠먹기 시작하자 다들 자연스럽게 덜어 먹게 되었어요"

IV. 고 찰

1. 주문한 음식을 공유하는 이유

앞서 밝혔듯이 공식 행위의 근저에는 주문한 음식을 나눠먹는 것을 선호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더 푸짐하고 더 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식 메뉴 중에 족발, 파전, 아구찜처럼 여럿이 나눠 먹도록 제공되는 음식이 많은 것은 한국인들이 그만큼 함께 나눠먹는 것을 당연시하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어차피 다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이니 한 접시에 담아내면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울 뿐 아니라 서빙도 간편하고 객단가도 올라가(김 등 2004) 업주에게도 득이 되므로 공유형 메뉴가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이 같은 공유선호 특성은 한식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파스타 전문점 스파게티아는 2-3명이 먹어도 넉넉한 양의 스파게티를 큰 보울에 담아 제공하는 보울 서비스를 시행하여 큰 인기를 끌었고(매일경제 2005), 둘이 나눠먹으면 혼자 따로 먹을 때보다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커플메뉴와 여럿이 나눠 먹도록 구성된 세트메뉴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김 2007; 윤 2008; 김 2009). 이는 개인주의 사회인 서구에서 대부분의 메뉴가 1인분씩 제공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2. 음식공유를 선호하게 된 배경 고찰

한국인들이 음식공유를 선호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알려면 이러한 문화가 나오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요인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저자들은 한국인의 음식공유 선호 문화가 촌락공동체에 뿌리를 둔 '우리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의식'이란 일정 범위 안에서 성립되는 집단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데, 한국인은 '우리의식'이 유난히 강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족중심 사회이면서 혈연 위주로 촌락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라는 일체감 속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Lee 1983). 촌락공동체 안에서는 가족과 친족을 '집안'으로 여기고 집안 내에서는 내것 네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으며(이 2006),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보리떡도 열 조각내어 나눠 먹어야하는 것이 촌락공동체의 정서였다(이 2009). '한솥밥 한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의 공유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우리의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였기에 마을에 길흉사가 있을 때는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음으로써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곤 했다.

이(1983), 권(2007), 조(2008) 등은 이같은 촌락공동체의 가족적 인간관계가 사회적 인연을 타고 확장된 것이 바로 동류의식이라면서 한국인은 동류 의식이 유난히 강하다고 했다. 동류의식이 통하는 사람들 간에는 가족적인 정서와 친밀감이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공식행위와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나온다.

가족적 인간관계로 연결된 촌락공동체 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며 내 몫을 구분하기 보다는 '우리 것'으로 공유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고(이 2006), 이러한 가치관이 오늘날에는 활동을 공유하는 동류집단으로 이어져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우리 것'으로 공유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식당에서의 공식행위는 주문한 음식을 내것 네것으로 나누지 않고 '우리 것'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자 주문했더라도 나온 음식은 다 함께 공유하며 계산할 때도 한 사람이 다 내거나 자기가 주문한 음식 값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눠 내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각자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에 대해 각자 지불한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회음(큰 잔에 술을 따라 돌려 마시는 행위)의 전통도 공식이 성행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신라의 포석정은 회음을 통해 군신간의 의리와 결속을 다짐하던 장소였고, 고려시대에는 각 관청마다 고유한 대형 술잔을 비치하고 회음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였다(이 1983). 회음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동질화를 이루는 동시에 끈끈한 결속력으로 이어져 상호 신뢰와 인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다. 인디언들이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회음과 유사한 공식 행위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회음은 고대로부터 하나의 '의식'으로 전통이 이어져왔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제사 후에 제주를 하나의 술잔에 담아 음복하는 것, 회식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 역시 회음에 해당한다. 회음을 공식의 한 형태라고 볼 때, 한국인들에게 공식은 고대로부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사회적 행위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집단의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며 제 멋대로 처신할 경우 따돌림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조 2008; 이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식행위는 집단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 공식을 할 때 '비위생적이라는 느낌, 내 몫을 빼앗기는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덜어 먹지 못하고 공식에 동참하는 것은 내 몫을 챙기는 야박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집단으로부터 배척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토론 참여자들의 응답이 저자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3. 공식과 친밀감 형성과의 관계

본고에서 밝혔듯이 토론 참여자들이 공식을 하는 주된 이유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Rozin(1990)은 다른 사람이 손댄 음식을 먹음으로써 친밀감이 형성되는 현상을 '접촉전염(contagion)의 원리'로 설명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 음식에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수(essence)가 음식으로 들어가고 그 음식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두 사람 간에 잠재적으로 강력한 친교와 상호이해가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본고의 토론자들이 공식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 강화된다고 여겼고, 입에 닿는 면적이 가장 넓은 숟가락으로 하는 공식에 친밀함의 의미를 가장 크게 부여한 것은 Rozin(1990)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Meigs(1984)는 다른 사람이 손댄 음식을 공유하는 행위를 'consubstantiation'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는 vsubstance'를 'share(공유)'한다는 말로 여기서 'substance'는 침과 같은 신체적 물질이나 은유적 감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남이 베어 먹은 사과를 같이 베어 먹거나,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거나, 개인 접시에 덜지 않고 자신의 포크나 젓가락 등으로 공식을 하는 것 등이 모두 consubstantiation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consubstantiation은 신체적 접촉에 버금가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해지지만 그 범위는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 연인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Meigs 1984; Rozin & Nemeroff 1990). 음식을 덜어먹지 않고 자신의 포크, 젓가락, 숟가락으로 공식하는 것 역시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가깝고 허물없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과만 하는 행동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본고에서 밝혔듯이 공식의 범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넓고 빈도도 매우 잦으며 숟가락 공식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른 나라와는 크

게 다르다. 이는 가족들과 가정에서 하던 공식 습관이 가족적 인간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친척 및 동류집단으로까지 확대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토론 참여자들에게 있어 공식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혹은 활동을 공유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질감을 느끼는 친하고 거리감 없는 사람들끼리 가족들과 먹는 방식 즉, 공식의 방식으로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고 우리의식을 다지는 사회적 행위로 이해된다.

4. 공식행위의 성별 차이

앞서 보았듯이 공식 행위에는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들은 동성끼리의 공식을 선호한 반면 남학생들은 '자기 것을 뺏기는 느낌이 들어' 동성과의 공식을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들은 이성과의 공식을 선호한 반면 여학생들은 대체로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Patterson(1991) 및 Miller 등(1998)의 보고와 일치한다. Patterson(1991)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접촉 및 기타 방법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므로 음식공유와 공식을 더 빈번히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iller 등(1998)의 연구에서도 음식공유와 공식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흔히 행해졌고, 남성은 공식 상대를 여성에게 국한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5. 앞으로의 방향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공식은 회음의 전통 등 역사적 뿌리가 깊고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인데다가 음식의 제맛을 잃지 않고 간편하게 나눠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우리의식'으로 엮어진 사람들 간에 친밀함과 공동체의식을 강화시켜주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식문화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된 것을 볼 때 공식을 통해 '실용적, 사회·심리적 유익을 얻는다'는 생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공식에 대해 위생문제 등 '부정적인 인식'도 병존함을 보여준다.

이에 저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므로 가정에서부터 찌개 등의 국물 음식은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 위생적인 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집에서 국물 음식은 반드시 덜어 먹는다는 한 여학생이 공식을 꺼린다는 결과는 저자들의 이러한 제안이 의미가 있음을 제시한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식(특히 숟가락 공식)의 위생적인 측면의 문제를 알리고 숟가락으로 먹는 음식은 덜어먹도록 유도한다면 위생문제의 우려가 감소되리라 본다.

둘째, 식당에서 앞접시와 덜음 용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 전남 광양시 보건소에서 앞접시 제공, 개인용 집게, 국자사용, 남은 음식 싸주기 활동을 펼쳐 음식문화개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덜어먹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좋은 선례이다(류 2010).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식당에서는 국물 음식에는 덜어 먹기 위한 국자와 식기가 항상 따라 나오며(우샤오리 2004; 구 & 김 2005), 싱가포르 보건부에서는 음식공유 시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과 식당에서 서빙 스푼의 사용, 국그릇과 소스그릇의 개별 사용을 권고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See 2009).

셋째, 음식의 볼품과 맛은 유지하면서 위생적으로 덜어먹기 위한 한식에 알맞은 덜음 용구와 식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찌개는 양이 적은데다가 납작한 앞접시에 덜면 볼품과 맛이 떨어지므로 숟가락 공식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음식으로 지적되어 덜음 용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V. 요약 및 결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론 참여자들은 친한 사람과 식사할 때 각자 주문했더라도 다 함께 나눠먹는 것을 선호하고, 이때 덜어먹지 않고 공식의 방식으로 하고 숟가락으로도 자주 공식하며, 공식을 유익하고 필요한 행위라고 여기고 있었다. 주문한 음식을 다 같이 나눠먹는 즉, '공유'하는 이유는 푸짐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경제적으로 먹을 수 있어 유익하기 때문이며 보쌈, 파전 등과 같이 1인분 이상으로 나오는 메뉴는 자연히 공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공유할 때 덜어 먹지 않고 공식하는 까닭은 공식이 친밀감과 '우리'라는 일체감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음식을 빨리 간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며, 공식의 근본 원인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양이 적거나 개인접시에 덜면 볼품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찌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숟가락을 사용한 공식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음식이었다.

공식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가족, 자주 보는 친척, 친구, 동창, 선후배, 연인 등이 포함되었다. 공식하는 범위에 속하더라도 환자, 지저분하게 먹는 사람 등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공식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자기 몫이 명확히 분배된 경우, 품위 있는 매너가 요구되는 상황, 외국인 앞에서는 공식을 자제하여 공식을 격조있는 매너로 생각하지 않았고, 공식하던 음식에 고춧가루 등이 떨어져 지저분해 보이면 즉시 공식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을 할 때는 친밀함, 평등함 같은 긍정적 심리와 비위생적이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심리가 모두 작용하였다. 숟가락을 사용한 공식에 친밀함의 의미를 가장 크게 두어 공식하는 사람들 간의 침 섞임은 친밀함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행위로 여겨짐을 알 수 있었다.

공식문화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과 개선되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제시되어 공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더불어 부정적인 태도가 공존하였다. 따라서 식사 시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두텁게 하는 우리나라의 미풍은 살리되 위생적이고 격조 있게 나눠 먹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공식하는 근본원인은 가정에서 습관화되었기 때문이므로, 가정에서부터 찌개 등 숟가락으로 먹는 음식은 덜어 먹도록 교육하여 습관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당에서 앞접시와 덜음 용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며, 음식의 맛을 손상시키지 않고 덜어 먹을 수 있는 식기와 용구의 개발도 요구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음식공유 행위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연구함으로써 한국 식문화의 특이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구성자, 김희선. 2005. 새롭게 쓴 세계의 음식문화. 교문사. 서울. pp 56-57

권수영. 2007. 한국인의 관계 심리학. 살림. 파주시. pp 50-56

김성윤. 2009. 한국만의 문화: 세트메뉴. 조선일보. 8월 18일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 2000. 포커스그룹 연구방법. 현문사. 서울. pp 13-17

김헌희, 이대홍, 김상진. 2004. 외식산업경영의 이해. 백산출판사. 서울. pp 383-384

김현상. 2007. 성년, 부부의 날 특별 메뉴 드세요. 서울경제. 5월 17일

류형근. 2010. 광양시 보건소, 음식문화 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Newsis. 12월 22일

편집부. 2005. 스파게띠아 '맛 좋고 양 많고' 입소문 타고 히트. 매일경제. 11월 3일

우샤오리. 2004. 중국음식. 김영사. 파주시. pp 16-17

윤경숙. 2008. 외식업계 커플메뉴로 불황 극복. 아시아 투데이. 11월 14일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3. 신원문화사. 서울. pp 106-113, 128-135

이규태. 1990. 뚝배기와 장맛. 문음사. 서울. pp 57-59

이규태. 2009. 한국인의 힘 2. 신원문화사. 서울. p 157

이상우. 2006. 우리들의 대한민국. 기파랑. 서울. p 104

이해석. 2009. 1인분씩 담고 덜어 먹게 하고... 남도 음식 상차림 '조용한 변화'. 중앙 일보. 3월 9일

이현정. 2007. 대한민국 진화론. 동아일보사. 서울. p 138

조관일. 2008. 이기려면 뻔뻔하라. 위즈덤하우스. 고양시. p 140

Anderson PA, Sull KK. 1985. Out of touch, out of reach: Tactile predisposition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distance. Western J. of Speech Communication, 49:57-72

Appadurai A. 1981. Gastro-politics in Hindu South Asia. American Ethologist, 8:494-511

Counihan C. 1999. The anthropology of food and body: Gender, meaning and power. Routledge. London. p 256

Douglas M. 1966. Purity and Danger.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p 1-15

Eibl-Eibesfeldt I. 2007. Human ethology. Transaction Pub. NY. pp 340-346

Flandrin JL, Montanari M. 2000. Food : A Culinary History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Penguin Group. NY. p 5

Haukanes H. 2007. Sharing food, sharing taste? Comsumption practices, gender relations and individuality in Czech families. Anthropolgy of Food, S3:1-11

Krueger RA 1998. Analyzing & Reporting Focus Group Results, Focus Group Kit 6. SAGE Publication. CA

Lee NK. 1983. A study on the essence of traditional community consciousness. Kyungpook Education Forum, 25:77-97

Martin J. 2007. Feast: Why humans share f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1-10

Meigs AS 1984. Food, sex and pollution: A New Guinea Religion.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J. pp 2-3

Miller L, Rozin P, Fiske AP. 1998. Food sharing and feeding another person suggest intimacy; two studies of American college students. European J. of Social Psychology, 28:423-436

Morgan D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Focus Group Kit 1. SAGE Publication. CA

Morgan DL, Scannell AU. 1998. Planning Focus Groups, Focus Group Kit 2. SAGE Publication. CA

Patterson ML. 1991. A functional approach to nonverbal exchange. In Feldman RS, Rime B. Fundamentals of nonverbal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p 470

Rozin P. 1990. Social and moral aspects of food and eating. In Rock I. The legacy of Solomon Asch: Essays in cognition and social psychology. Hillsdale. Erlbaum, NJ. pp 97-110

Rozin P, Nemeroff CJ. 1990. The laws of sympathetic magic: A psychology analysis of similarity and contagion. In Stigler J, Shweder RA, Herdt G. 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p 205-232

See LK. 2009. Don't want virus? Don't share food. Asiaone. April 29

2011년 3월 11일 신규논문접수, 4월 6일 수정논문접수, 4월 6일 채택